

북한 지도자 제거 이후 한반도 불안정성 제고 가능성 고찰

: 해외 참수작전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황소희 (연세대학교)

국문요약

본 논문은 북핵 문제 해결의 여러 방안 중 하나인 북한 지도부 제거의 결과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성 제고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은 골칫거리로 분류되는 국제정치의 행위자 및 관련 집단을 전면전이 아닌 선별적으로 타격하는(Targeted Killing) 것으로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참수작전의 실행 결과는 반군 및 테러단체를 해산시켜 지역 내 분쟁을 종식시킨 것 외에도 해당지역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 사례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참수작전이 지역내 안정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천착해 해외에서 진행된 참수작전을 분석하여 이것이 지역 안정성에 미치는 요인을 추출해 냈다. 해외에서 실행된 참수작전은 반군 단체와 같은 국내 반정부세력, 테러단체 등 초국경행위자, 권위주의체제국가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수작전의 결과로 지역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해당 지역 주민 지지도, 참수대상 추종 세력 포섭 및 제거, 대안리더십으로 추출했으며 이 요인을 한반도 상황에 대입해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시점에서 북한 지도부 제거는 북한 내부는 물론 한국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 본 논문은 한국국제정치학회 2017년 하계 학술회의 대학원생 세션에서 발표한 “참수작전의 한반도 효용성 검토”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등재되기까지 좋은 의견 제시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들과 김용호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주제어: 북한 지도자 제거, 김정은 제거, 북한 참수작전, 순교자효과, 리더십 제거

I. 서론

본 논문은 북핵 문제 해결의 여러 방안 중 하나인 북한 지도부 제거의 결과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성 제고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흔히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은 골칫거리로 분류되는 국제정치 행위자 및 관련 집단을 전면전이 아닌 선별적으로 타격하는(Targeted Killing)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적 맥락과 연결되어 북한의 김정은과 지도부를 대상으로 이 작전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반도에 참수작전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한반도의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실제 참수작전이 반군 및 테러단체를 해산시켜 지역 내 분쟁을 종식시킨 것 외에 해당지역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 사례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수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기존에 진행된 사례를 분석하여 이 작전의 효용성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현재 한반도에서 거론되고 있는 김정은 참수작전의 실행 결과를 학술적으로 예측하고자 한다.

논문의 연구방법론은 드론 공습(Drone Strike), 표적 살해(targeted killing), 참수작전(decapitation · beheading operation)과 같은 키워드로 추출해 낸 문헌을 분석하는 간접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참수작전 논의의 배경과 이론적 근거 및 기존 연구를 살펴

본다. 두 번째로 실제 참수작전이 시행된 해외 사례를 통해 이것이 해당 지역의 안정성에 미친 영향과 작전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분류한다. 세 번째는 기존 사례에서 추출해 낸 참수작전 실행 이후 불안정성 제고 요인을 한반도 상황에 적용해 본다. 네 번째로는 논의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II. 참수작전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미래 위협 예방조치의 일환으로써의 참수작전

미국에서 전술적 의미의 지도부 제거는 9·11 이후 미국의 4개년 국방정책검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 제시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가에 대한 새로운 전략 중 하나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전쟁에서 신속한 승리를 보장하고 한 지역의 체제 붕괴 및 점령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된다. 참수작전은 전쟁으로 발생할 민간인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외 비난 여론 희석, 예방적 군사 조치의 정당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전시 민간인 피해 예방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에 대해 인류가 반성하고 이를 방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규범적으로 확산되는 생명존중의 원칙과도 접맥해 있다.¹⁾ 민주주의 국가가 인명 손실이 필연적인 전쟁을 막기 위해 선거라는 방법으

1) 김병렬, “4세대 전쟁에서의 민간인의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에 관한 일고,” 『국제법학회논총』, 제55권 1호 (2010), p.63; 유재형, “무력충돌법상 민간인의 보호,” 『강원법학』, 제32권 (2011), p. 391; Nils Melzer, *Targeted Killing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 278; 이진규·권한용, “국제법상 ‘군사적 필요성’에 관한 일고찰,” 『동아법학』, 제71권 (2016), p156.

로 정치 엘리트를 제재하는 체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호전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지도자를 낙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중비용(audience cost)에 따라 국가의 엘리트는 다음 선거에서 전쟁에 책임을 물을 유권자를 두려워하며, 전쟁을 기피하거나 전쟁을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²⁾ 대외적인 측면에서 타국(민)이 제기하는 반전 여론은 전쟁 국가에 대한 외부의 지원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³⁾

이런 이유로 현대전의 양상은 인명살상과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수행된 미국 주도의 전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①웅징 혹은 보복보다 미국의 국익에 위배되는 대상에 대한 선제 공격 ②공군력 중심 정보감시정찰능력과 정밀타격능력이 결합한 네트워크 중심 전쟁(Network Centered Warfare · 이하 NCW) ③불량국가(Rogue State) 및 테러·반군 게릴라 단체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확산 행위자의 지도부 제거 및 교체 ④정밀성 향상 무기로 인명살상과 민간인 피해 최소화이다.⁴⁾ 이 중 참수작전은 드론과 같은 무인공격기 타격, 크루즈 미사일 타격(cruise missile strike) 및 데브그루, 델타포스, 네이비실과 같은 참수 전문 부대 파견으로 구체화되었다. 드론을 통한 타격은 설령 일부 지역에서 예기치 못한 오폭 및 타격 지역 주변 민간인 피해 등으로 지역 내 반미

2) James D. Fearon, "Domestic political audiences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3 (1994), pp. 577-592; Patrick J. McDonald, *The invisible hand of peace: Capitalism, the war machin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참조.

3) Stephen G. Brooks, and G. John Ikenberry, eds, "Don't come home, America: The case against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37, no. 3 (2012), pp. 7-51 참조.

4) 한용섭, "기획논문: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안보;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 평가와 전망," 『국방연구』, 제46권 2호 (2003), p.10 참조.

정서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대규모 육지전보다 비용 절감 및 민간인 피해 감소 측면에서는 의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⁵⁾

2. 미국의 대북 지도부 제거 결정 가능성 요인 탐색

1) 제도 차원

선제타격은 자국의 위협 상황을 상황에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굉장히 시급한 위기에 닥쳤을 때 국제사회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제까지 분쟁과 테러 등 지역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조직과 단체, 국가 지도자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참수작전을 진행하였다. 알 카에다, 탈레반, 이라크, 리비아 등 해당 단체 및 국가의 지도자 제거 작전은 각 테러와의 전쟁,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확산 혐의, R2P라는 명목으로 시행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라크 전쟁인데, 미국이 국내법만으로도 자국이 위협이라고 인식한 세력을 공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 놓은 후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진행한 계획이기 때문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단체나 약소국이 자국에 대항해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심각한 테러 공격을 준비할 경우 사전에 행동하여 이것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예방조치(pre-emptive action)라는 개념을 국가안보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이것은 악의적인 국가 혹은 테러리스트가 본국 혹은 동맹국에 대량살상무기로 위협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행동한다(if necessary, act preemptively)’는 것이었다.⁶⁾ 이 부분은 미국이 국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로부

5) Jacqueline L. Hazelton, "Drone Strikes and Grand Strategy: Toward a Political Understanding of the Uses of Unmanned Aerial Vehicle Attacks in US Security Polic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0, no. 1-2 (2017), p. 85.

6)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터 지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지만, 필요하다면 홀로 공격하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테러리스트와 불량국가로부터 자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 행동'에 나설 것을 의미한다.⁷⁾ 이는 북한의 핵을 통한 위협 행위가 인정투쟁과 같은 시위가 아닌 미국 본토에 대한 실질적 안보적 위협이라고 인식이 된다면, 미국은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국내법에 근거하여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미국의 북핵 위협 인식 차원

제1차 북핵 위기 이래 북한의 제3차 핵실험까지 미국의 대북한 접근은 북핵 자체의 위험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클린턴이 1994년 6월 영변 핵시설 폭격이나 북한 지도부 제거를 고려한 이유도 그 자체의 위험성 보다는 핵에 대한 평화적 이용 및 국제 공조인 핵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이하 NPT)에서 북한이 이탈해 일본과 남한을 볼모로 위기조성전략을 펼친다고 인지되었다. 북한의 2차 핵실험까지 UN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국적 공조는 북핵 자체의 군사적 위험성보다는 NPT라는 국제 레짐과 대량살상무기인 핵의 확장 억지라는 규범을 북한이 따르지 않아 부과되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높을 것이다. 이런 분석은 영국이 보유한 핵무기가 현재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보다 양적으로 많고 질적으로도 수준이 높음에도 미국이 영국보다 북한의 핵을 문제 삼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⁸⁾ 국가의 정체성은 매우 상대적인 개념으로 타국과의 관계를 통해 정립된다는 것을 요체로 한 웬트(Alexander Wendt)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적인 시각과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02) p. 15.

7) Jonathan Masters, "Targeted killing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vol. 23 (2013).

8) 양준희, "월츠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웬트의 구성주의의 도전," 『국제정치논총』, 제41권 3호 (2001), p. 20

도 접맥한 분석이다.⁹⁾

그러나 2016년부터는 미국의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이 질적으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에 이루어진 북한의 제3차 핵실험까지는 미국 내부에서도 북한의 본토 타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¹⁰⁾ 그러나 2016년 1월 제4차 북핵 실험 이후 연달아 발생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실험은 북한의 핵 기술력이 한국과 일본까지 타격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인지하게 하였다.¹¹⁾ 2016년 9월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진행하고 2017년 9월 3일 사상 최대 규모의 제6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 기술력이 진전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당 기관지를 비롯한 주요 매체를 통해 괌과 백악관, 워싱턴 등 미국 본토 지역에 대한 타격을 거론하였고, 6차 핵실험 이후 3,700km까지 비행 가능한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통과시켜 북태평양까지 쏘아 올리는 등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겨냥한 행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18년 6월 기준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북미관계 기조가 많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지속되었던 핵실험과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놓

9)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1992), pp. 391-425.

10) “In Focus: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New York Times* (온라인), 2013년 4월 16일;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3/04/12/world/asia/north-korea-questions.html?action=click&contentCollection=world&contentPlacement=3&module=stream_unit&pgtype=collection®ion=stream&rref=collection%2Ftimestopic%2FNorth%20Korea&version=search&r=0>.

11) “North Korea Will Have the Skills to Make a Nuclear Warhead by 2020, Experts Say,” *New York Times* (온라인), 2016년 9월 9일; <https://www.nytimes.com/2016/09/10/science/north-korea-nuclear-weapons.html?ref=collection%2Ftimestopic%2FNorth%20Korea&action=click&contentCollection=world®ion=stream&module=stream_unit&version=search&contentPlacement=7&pgtype=collection>.

은 미사일 발사 기술을 진전시키는 북한의 행위를 목도한 미국의 대북 인식은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말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6년~17년까지 매우 적대적이다.¹²⁾ 그동안 핵확산 방지 차원에서 평가되었던 북한의 핵이 미사일 요격 거리의 확대와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협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참수작전’이라고 명명된 북한의 지도부 제거에 대한 논의가 2016년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 제4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한국 양국의 언론, 한국 국방부, 미국 국무부, 정보기관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론되었던 것이 그 방증이다.

3. 참수작전의 효과에 대한 기존 논의 및 대안적 분석틀

참수작전은 드론이나 크루즈를 이용한 타격과 참수부대 파견에 따른 살해, 암살, 생포 후 사법처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렐크와 슈메커(Lehrke · Schomaker)가 분류한 기준에 따르면 참수작전의 대상은 고위급 지도부, 중간관리자, 실무진 및 일반 군인으로 분류된다. 대응하는 대상의 수준은 국가, 초국경비정부행위자, 반군 조직으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각각 불량 국가, 국가를 넘어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종교나 근본주의 단체, 국가 내 저항세력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¹³⁾

적성국 혹은 분쟁 단체의 지도자 제거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린다. 참수작전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존스톤

12) "North Korea Conducts Fifth Nuclear Test," *Wall Street Journal* (온라인), 2016년 9월 9일 <<https://www.wsj.com/articles/earthquake-hits-near-north-korea-nuclear-test-site-1473383426>>.

13) Jesse Paul Lehrke and Rahel Schomaker, "Kill, Capture, or Defend? The Effectiveness of Specific and General Counterterrorism Tactics Against the Global Threats of the Post-9/11 Era," *Security Studies*, vol. 25, no. 4 (2016), p. 730.

(Johnston)은 참수작전이 전투적 단체(militant groups)들을 약화시키고 이들을 격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지도자 제거는 ①전쟁의 종식 가능성을 높이고 ②승리의 가능성을 상향시킴과 동시에 ③군사적 저항의 밀도를 낮추고 ④저항세력의 공격빈도를 줄인다고 보고 있다.¹⁴⁾ 프라이스(Price)가 전세계적으로 활동했던 테러집단의 리더들이 참수(살인, 납치, 납치 후 살해)가 된 이래 단체가 받은 영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리더가 참수된 테러 단체의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단체보다 낮았고, 리더가 사망한 단체 30% 가량은 2년 내 사라졌다.¹⁵⁾ 프라이스의 분석 결과는 단체 형성의 초기 단계에 지도부를 참수할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단체가 만들어진 지 1년 이내 지도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다른 테러 단체보다 소멸할 확률이 8배가량 높았다. 살인, 납치, 납치 후 살해 등 3가지 방법 공히 집단을 격퇴시켰으며, 참수 외 테러 단체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테러 단체의 활동력을 저하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이에 반해 지도자 제거 후 나타나는 부작용에 주목해 참수작전의 비효용성을 강조하는 논의도 존재한다. 조르던(Jordan)은 1945년부터 2004년까지, 단체의 지도부가 참수된 92개 테러단체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는데 참수 작전이 단체를 대담하게 만들고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높은 수준으로 관료화되었거나 대중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단체의 경우, 적의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 단체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¹⁶⁾ 고도의 관료적 제도화를 이룬 단체의 경우 지도자의 추종

14) Patrick B. Johnston, "Does decapitation work?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leadership targeting in counterinsurgency campaig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4 (2012), pp. 4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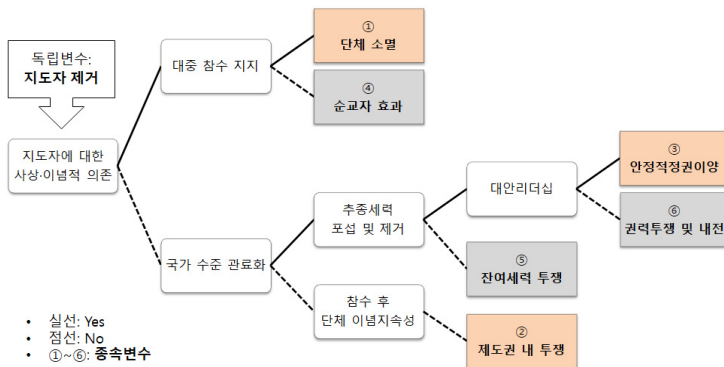
15) Bryan C Price, "Targeting top terrorists: How leadership decapitation contributes to counterterrorism,"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4 (2012), pp. 9~46.

16) Jenna Jordan, "Attacking the leader, missing the mark: Why terrorist groups survive

자들이 시스템을 재정립해 보복에 나서거나 단체의 부흥을 목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수작전으로 인한 지도자의 제거는 단체의 응집력과 단결력, 충원력을 높여 힘을 증강하게 한다. 로트리언트(Lotriente)는 순교자 효과(Martyrdom Effect)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제거된 지도자의 인기와 지지도가 이 효과를 일으키는 데 요인이 된다.¹⁷⁾ 지도자가 제거된 후 추종자들은 지도자의 참수 상황과 폭격으로 인한 민간인의 사상 장면 등을 미디어에 노출해 공격의 참상을 설파하는 프로파간다를 완성하여 지도자에 연민을 갖고 있던 대중의 적개심을 고조시켜 이들을 잠재적 추종자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¹⁸⁾

〈그림 1〉 지도자 제거로 인한 지역 안정성 변화 트리



decapitation strik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8, no. 4 (2014), pp. 7-38 참조.
 17) Catherine Lotrionte, “When to target leaders,” *Washington Quarterly*, vol. 26, no. 3 (2003), pp. 73-86.
 18) Aaron Mannes, “Testing the Snake Head Strategy: Does Killing or Capturing its Leaders Reduce a Terrorist Group’s Activit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cy Solutions*, vol. 9, no. 40 (2008), p. 44.

참수작전의 효과에 대해 상반된 논의가 존재하는 것은 실제 이 작전이 실행되고 난 후 도출된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참수작전의 효용성을 주장하는 논의에서는 작전의 결과로 피침 행위자 및 단체의 소멸부터 활동력의 유의미한 저하까지 성공의 기준으로 놓는 반면, 불용성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피침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단체의 활동 상태와 피침 이후 민간인을 비롯한 다른 행위자에 대한 보복이 진행되는 것까지 실패의 범위로 상정한다. 사실상 참수작전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피침 대상의 완전한 소멸과 생존이라는 양자 간 범주 안에서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정도의 차이를 해석하는 데 따라 나뉜다고도 볼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논문이 대안적으로 참수작전을 통한 지도자 제거의 결과가 해당 지역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식화한다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참수작전이 해당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는 참수 대상의 단체나 행위자가 소멸하거나 반대로 존속하더라도 지역이 안정화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 1>의 ①, ②, ③에 대해). 이와는 반대로 지도자 참수 이후 지지자를 중심으로 일반 대중 사이에 나타나는 순교자 효과, 지도자 측근 잔여세력의 조직적 저항, 지도자 제거 이후 대안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지역 분쟁·갈등 및 내전의 고조 등(<그림 1>의 ④, ⑤, ⑥에 해당)은 궁극적으로 지역 안정성을 저하시킨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들에 의거해 본 논문에서는 참수작전으로 단체 및 행위자의 내구력 증감이 아닌 참수 대상이 활동하는 지역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에 착안해 해외사례 참수작전의 과정과 결과를 검토하며, 이 중 북한에도 적용되는 대중의 참수지지, 추종세력 포섭 및 제거, 대안리더십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참수작전 실행 관련 해외 사례 분석

이번 장에서는 해외에서 진행된 주요 지도부 제거 사례를 통해 참수작전 이후 지역의 안정성 및 불안정성이 제고되는 과정을 추적해 나간다. 본 논문이 추출한 참수 대상은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대중의 참수지지, 추종세력 포섭 및 제거, 대안리더십을 요인으로 추출해 낼 수 있는 사례에 한정해 분석한다. 단체 수준에서는 페루의 좌익 게일라 조직, 아프가니스탄의 알 카에다이며 국가 수준에서는 파나마, 리비아, 이라크이다. 본 논문의 분석틀에 의거해 지도자가 제거가 진행된 해외 사례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사례별 지도자 제거 당시 영향 요인

		지역 안정성 제고			지역 불안정성 심화		
결과		① 단체 소멸	② 제도권내 투쟁	③ 안정적 정권이양	④ 순교자 효과	⑤ 잔여세력 투쟁	⑥ 권력투쟁 내전
분류	실행 주체	페루	스리랑카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대상	빛나는 길 구즈만	JVP의 비제비우타	파나마 노리에가	알 카에다 빈 라덴	이라크 후세인	리비아 카다피
	수준	단체	단체	국가	단체	국가	국가
영향요인	- 대중 참수지지	○	△	○	X	△	○
	단체 이념 지속성	X	X	-	○	-	-
	고도의 관료화	-	-	○	-	○	○
	국가 지배연합 포섭·제거	-	-	○	-	X	○
	대안 리더십	-	-	○	-	△	X

1. 참수작전 이후 지역 안정화 사례

지도자 참수 후 지역이 안정되는 사례는 단체 수준의 경우 이것이 ① 소멸하거나 ② 기존의 폭력적인 노선에서 탈피해 의회나 시민사회 등 제도권 내에서 투쟁을 선택할 때 나타난다. 국가의 경우 지도자 참수 후 ③ 대안 리더십이 등장하여 정권을 안정적으로 이양할 때다.

페루의 좌익 게릴라 조직인 빛나는 길(Shining Path)은 지도자에 대한 의존이 높은 단체가 대중의 지지를 잃었을 때 지도자가 참수되면 소멸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²⁰⁾ 아비미엘 구즈만(Abimeal Guzmán)이 이끌던 빛나는 길은 마오이즘 추종자이자 교수였던 구즈만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대학생이 주축이 되어 조직화되었다. 구즈만의 카리스마와 지휘 통제에 의존하던 단체는 지도자 생포 후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페루 정부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빛나는 길에 대한 대대적 소탕의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킴과 동시에 경제 성장과 분배

19) ②번 사례는 본 논문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으나, 지도자 제거 이후 반체제 테러 단체의 이념지속성이 저하되고 정부가 단체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가 강할 때 단체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제도권 내 투쟁으로 전선을 옮긴 스리랑카 인민해방전선(Janatha Vimukthi Peramuna · JVP)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JVP 지도자 로한 비제비위라(Rohana Wijeweera)가 사살된 후 JVP 내부에서는 사회의 모순 제거라는 투쟁 목표를 테러가 아닌 의회 내에서 해결하는 데 합의를 하였다. JVP는 의회에서 1994년 1석을 얻는 것으로 시작하여 2004년에는 39석까지 차지하였다. 자세한 내용 Jonathan D. Watkins, "The state, conflict and the individual: the effect of the Janatha Vimukthi Peramuna (JVP) insurrections in Sri Lankan on the mental welfare of a population," *Medicine, Conflict and Survival*, vol. 21, no. 3 (2005), pp. 216~229.

20) 빛나는 길은 1970년대와 80년대 페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는데, 주로 격리된 경찰서나 군부대에 폭탄을 설치하거나 주요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1980년대까지 2만여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Billie Jean Isbell, "Shining Path and peasant responses in rural Ayacucho," *The Shining Path of Peru*, (1994), pp. 77~99.

정의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제도에 불만을 갖던 잠재적 빛나는 길의 추종자를 포섭하였다. 대중 역시 테러와 게릴라 활동을 통해 대량 인명 손실이 발생하던 빛나는 길의 과격한 폭력 방식 보다 안정화된 정부의 관리를 지지하였다.²¹⁾

파나마의 지도자 마누엘 노리에가(Manuel Noriega) 제거는 대중과 지배연합의 지지를 받는 대안리더십이 존재할 때 국가 지도자를 제거해도 해당 국가가 안정화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사례이다. 노리에가는 1983년 파나마의 최고 사령관이 되었는데, 정권을 획득하기까지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노리에가는 마약 밀매와 남미의 주요 정보를 미국 외 다른 국가에게 이중으로 제공한 것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게 된다. 1986년 미국 의회가 파나마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 중단을 결정하였고, 1989년, 파나마 침공을 단행해 그를 마약 밀매 혐의로 자국 마이애미 법정에서 재판했다. 이후 파나마는 안정성을 유지했는데, 미국과 그가 반목하던 시기 이전부터 국내적으로 그에 대한 저항 세력이 조직적으로 규합되었고 일부 군벌을 제외하고 대중을 비롯해 국가 주요 기관의 지지를 받는 기예르모 엔다라(Guillermo Endara)라는 대안 리더십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²²⁾ 엔다라는 군사개혁과 매년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내 사후

21) 1992년 구즈만이 생포되기 전, 분기별로 154회 정도 발생했던 빛나는 길의 테러 활동은 1993년부터 분기별 10회 이하로 급감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 Stewart J. D'Alessio and Lisa Stolzenberg, eds, "Does Targeted Capture Reduce Terrorism?"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vol. 37, no. 10 (2014), pp. 881-894; David Scott Palmer, "Revolutionary leadership as necessary element in people's war: Shining Path of Peru," *Small Wars & Insurgencies*, vol. 28, no. 3 (2017), pp. 426-450.

22) 1989년 5월 파나마 총선에서 엔다라가 이끄는 야권 연합이 노리에가 진영에 압승했던 상황이었다. Mark P. Sullivan, "Panama: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nd US Relations,"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1), p. 3.

‘파나마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부여 받기도 하였다.

2. 지역 불안정성 제고 사례

지도부 참수 후 지역의 불안정성이 제고되는 경우는 단체 수준에서 제거된 지도자에 대한 연민 내지 동경으로 일반 대중 사이에 ④순교자 효과가 나타나 점조직 형태의 테러리스트 활동이 발생하거나 국가 수준에서 지도자 교체 후 ⑤대안 리더십의 부재로 권력 투쟁 내지 내전 발생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경우, 국가 지도자 제거 후 추종세력을 제대로 포섭 혹은 제거하지 못해 ⑥잔여 세력이 지속적인 투쟁 활동을 벌이는 경우로 나타날 수 있다.

순교자 효과는 ‘리더 없는 지하드(leaderless jihad)’를 촉발시킨 알 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 참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효과는 지도자의 영향력이 매우 클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다. 빈 라덴 참수작전은 그의 후예를 자처하는 IS의 형성과 전 세계 이슬람 출신 민간인이 ‘그들만의 순교’에 가담하는 원인이 되었다. 생전 그의 메시지는 알 자지라(Al Jazeera)와 같은 방송에서 살아있는 ‘외로운 늑대(lone wolf)’에게 성전을 촉구하는 등 사후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²³⁾ 이렇게 된 이유는 빈 라덴이 지니고 있던 ‘자기희생을 통한 초월’의 이미지가 주요했다.²⁴⁾ 미국과 비대칭 전쟁에 임하면서도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 두려움을 초월하여 이슬람 박해 세력인 세계에 의해 기꺼이 순교한다는 서사와 활동 모습은 알 카에다의 사상적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지역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영향을 미쳐 전 세계 초국경적 빈 라덴 추종자를 양산하였

²³⁾ Thomas Homer-Dixon, “The rise of complex terrorism,” *Foreign Policy*, vol. 128, (2002), p. 58.

²⁴⁾ 강봉구, “글로벌 지하드,” 『한국정치학회보』, 제36권 4호 (2002), p. 154.

다. 결국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단체의 활동 반경이 2011년 이후로 예멘,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산되었다.²⁵⁾

국가 수준에서 지도자 제거 후 잔여 세력의 투쟁이 지속되는 사례는 지도자 참수 전후 추종세력을 포섭 혹은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나타났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 수니파였던 후세인이 생포되어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거된 다음에 후세인 잔당은 주민 속으로 잠입해 정치별 라이벌이었던 시아파와 미군을 대상으로 한 테러 활동을 지속하였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 내전이 발생해 3만 여 명 정도의 이라크 민간인이 살해되었다.²⁶⁾ 이라크 지역에서 활동하던 쿠르드족의 영토 회복운동도 발생하면서 이라크 내에서는 복잡한 종파 및 종족 간 유혈 분쟁이 공공연하게 발생했다.²⁷⁾ 후세인의 가족과 추종자는 수니파인 IS를 동맹으로 인식하여 이들이 이라크 북부 지역을 장악하는 데 물질·인적으로 지원해 지역 내 IS의 창궐에 일조하기도 하였다.²⁸⁾ 특히 민병대 수준의 시아파의 군 조직보다 전문성과 실전 능력이 뛰어난 후세인의 군부는 IS에 합류하여 전력을 더 강화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

리비아의 지도자 무하마드 카다피의 사례는 국가 수준에서 지도자를 제거하고 추종 세력을 포섭 및 제거해도 대안적으로 교체된 정권이 완벽

25) 알 카에다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Marc Sageman, *Leaderless Jihad* (Univ. of Pennsylvania Press 2008) 참조.

26) 이근욱, “미래의 전쟁과 전쟁의 미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군사혁신의 두 가지 측면,” 『신아세아』, 제17권 (2010), p. 181.

27) 이종철, “민주주의 확산과 전후 재건의 한계와 교훈: 미국의 이라크 전쟁 수행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2권 3호 (2009), pp. 168~169.

28) “Saddam Hussein's daughter now designs jewellery inspired by her evil dictator dad and the husband he had killed,” *Daily Mail* (온라인) 2015년 1월 22일;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918956/Saddam-Hussein-s-daughter-designs-jewellery-inspired-evil-dictator-dad-husband-killed.html#ixzz4kKHedLqC>> 참조.

하게 체제를 장악하지 못할 경우 외부세력의 개입과 대내적인 권력투쟁 등으로 지역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처럼 선거가 아닌 힘의 투쟁으로 정권을 획득하는 환경에서는 대안리더십의 부재가 내전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아랍의 봄(Arab's Spring) 여파로 리비아에 확산된 반정부 시위에 카다피가 과잉진압을 하게 되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R2P 수호를 명목으로 카다피 제거에 더 노력을 기울였다. 카다피 제거 이후 리비아 지역은 리더십의 부재로 인근 국가에서 창궐하고 있던 IS의 침투, 시민군 및 민병대의 무장해제 거부, 무장 단체 간 분쟁과 같은 소요 사태가 지속되었다.²⁹⁾ 리비아에는 과도정부, 제헌의회 등이 구성되었으나 새로 선출된 내각 구성원이 암살, 납치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고 현재에는 트리폴리 소재 이슬람계 통합정부와 동부지역 소재 비이슬람계 정부가 리비아 산발적인 교전을 벌이고 있다.

IV. 북한 지도자 제거 이후 한반도 불안정성 가능성 검토

1. 북한의 지도자에 대한 이념적·사상적 의존 수준과 주민의 지도부 제거에 대한 지지 여부

참수작전 자체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시행하는 지역 내 이것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의 지지도이다. 빈 라덴을 통해 나타났듯이, 지도자

²⁹⁾ 한국국방연구원, <http://www1.kida.re.kr/woww/dispute_detail.asp?idx=221>.

에 대한 사상·이념적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는 서사를 구성하는 지도자의 영향력이 순교자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정서는 지도자 제거 이후 해당 지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거주민이 참수 주체보다 단체와 맺고 있는 관계성에 따라 테러 단체를 지원하거나 공조했기 때문이다.³⁰⁾

북한 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참수 주체인 미국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성향이 매우 높다. 북한에서는 1945년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가쓰라 테프트 조약을 체결한 미국을 한일 병합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미국을 타도해야 할 제국주의세력으로 설정한 만큼, 미국에 대한 견제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 김일성은 북한 주민에 반미주의를 심어주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성격을 규정하였다.³¹⁾ 이 적대감은 6·25 전쟁 당시 평양과 원산을 대상으로 한 미군의 대규모 폭격 이래 극대화되었다.³²⁾ 2015년 기준, 북한 주민은 한반도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미국을 지목했으며(65.7%),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미국을 1순위로 응답한 것은 미국에 대한 적대 인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한다.³³⁾

미국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인공위성 기술은 역설적으로 스피ن 오프(spin-off)에 의거해 군수기술을 민수기술로 전환시켜 북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북한 주민에게 부여하는 계기로 작용한다.³⁴⁾ 이것은 미국이 조성한 어려운 대외적 여건 속에서도

30) Keith Patrick Dear, "Beheading the hydra? Does killing terrorist or insurgent leaders work?" *Defence studies*, vol. 13, no. 3 (2013), p. 309

31) 정영철, "북한의 반미: 이데올로기, 문화 그리고 균열," 『신아세아』, 제18권 2호 (2011), p. 150

32) 김영수, "북한의 대미 인식," 『현대북한연구』, 제6권 2호 (2003), p.15.

33) 최규빈, "남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 비교-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8권 1호 (2016), pp. 127~128.

성장을 이루어 내는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의 지속적인 지지도 증가로 이어진다.³⁵⁾ 이러한 수치는 북한 주민이 사회주의(14.2%)보다 자본주의 선호 비율(75.1%)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 주민의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별개라는 것과 체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지도자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논의로는 북한 주민에게 지도자 제거의 정당성을 설득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이 지도자에 대한 사상적·이념적 의존이 과도하다는 부분도 북한 주민의 지도자 제거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최근 북한은 수령영생주의, 김일성의 시신을 온전히 보장하고 김일성이 통치했을 당시의 제도와 이념 등을 고착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³⁶⁾ 현재 김일성은 영생하는 수령으로 언제나 북한 주민과 함께하는 초월적 지도자이며, 그의 후계자인 김정일, 김정은은 그의 유훈을 받아들여 북한을 통치하는 백두 혈통의 후계자이다. 김일성에 대한 북한 주민의 그리움은 대중 동원과 희생이 가능하게 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며, 북한의 거둬들인 경제난 속에 아사자가 속출하는 가운데에도 살아남기 위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동인이 되었다.³⁷⁾

이미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은 신화가 주민의 삶 안에 내재화된 것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북한 주민 중에서는 주체사상에 의해 학습된 인식에 따라 일개 북한 지도자 동상 파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

34) 강호제,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분석: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 시도와 CNC 기술 개발,”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1호 (2015), p. 257.

35) 북한 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50% 이상이 넘을 것이라는 응답은 2012년 70.7%, 2013년 61.7%, 2014년 64.4%이다.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2호 (2014), p.166.

36) 김윤애, “영생하는 수령과 ‘그리움의 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6권 2호 (2016.6), p.220.

37) 위의 책, p. 335

놓는 경우도 존재했다.³⁸⁾ 이것은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제거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게릴라, 자폭 테러 등을 주도하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한다. 외로운 늑대가 사는 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거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처럼, 이들은 북한에 자치정부 혹은 한국이 관할하기 위해 세운 기관이 수립된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테러활동을 하거나,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으로 잠입해 들어와 남한 지역에서의 조직적·비조직적 게릴라 활동을 벌일 수도 있다. 순교자를 자임하는 이들의 활동은 개인적 동기에 의한 테러이기에 통제하거나 사전에 수색해 내기가 어렵고, 테러의 목적이 예기치 않은 시기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남한 주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북한의 신화적 인물에 대한 그리움은 정권이 2차례 세습되면서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정치적 정당성과 영향력이 확립되는 데 김일성에 대한 주민의 향수가 존재한다는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생적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에서의 물자를 통해 외부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도 여전히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북한 주민이 57%에 달하기 때문이다.³⁹⁾

2. 추종세력 포섭 및 제거 가능성과 대안리더십 확보 여부

추종 세력은 지도자가 제거된 이후 단체나 단체를 재건하여 지속적으로

38) 대표적으로 1993년 비행사 길영조는 비행훈련 중 고장난 비행기가 김일성 동상에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를 돌리다 자폭하였고, 북한은 길영조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한 바 있다. 2003년에 열린 대구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에 참석한 북한 여성 응원단이 김정일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는 현수막에 비에 젖는다고 눈물을 흘리며 항의했던 사례도 있다.

39)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 p.164

로 활동하게 하거나 다른 단체와의 연합 내지 협업으로 지역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한다. 북한 지역에서 김정은 제거 후 추종세력이 남아 저항을 계속한다면, 지역 내 불안정성은 높아질 공산이 크다. 김정은을 추종하는 세력을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김정은의 가족 및 혈육으로 백두혈통을 계승해 북한 지역에서 다시 집권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는 이들이다. 김정은은 아직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배우자인 리설주 사이에 둔 자녀도 아직 어린 딸에 불과하다. 대안으로 김정철이나 김여정 등 김정은의 형제 및 남매 혹은 김정은의 아내인 리설주 등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

이 때 김정은 생전 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던 군부 및 당의 엘리트는 이 후계자를 보위하여 북한 지역의 정권 탈환을 위해 함께 활동할 수 있다. 털록(Tullock)은 혈통 승계가 이루어진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권력 투쟁 없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정권이 이양되었기 때문에 지배연합을 형성하고 있던 추종세력에게도 상대적으로 일관적인 정치적 공간을 제공하여 이들이 지배연합에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설명한다.⁴⁰⁾ 이런 분석은 혈통 승계가 이루어져도 지배연합 사이에 권력 투쟁이 나타나기보다는 추종 세력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하여 권위주의 체제의 지도자 권력이 유지·강화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은 고도의 관료적 행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정은 참수 및 북한에 대한 부분적 공습이 발생하더라도 북한 당조직의 물적 토대가 남아있을 경우 김정은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가족 및 혈육을 보위하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활동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털록의 분석처럼 김정은의 추종세력은 북한에 미국과 남한이 주도적으

40) 권위주의 체제의 혈통 승계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Gordon Tullock, *Autocracy* (Boston :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7) 참조.

로 세운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는 것보다 이익을 공유했던 김정은 주변 인사로 빠르게 권력 공백을 대체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안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주요 엘리트와 대중의 지지를 얻는 대안 리더십을 확보해 놓지 못한 상태에서 김정은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나오는 혈육 외 인물 및 단체가 등장해 북한의 권력 공백 상태에서 차기 지도자가 되기 위해 권력투쟁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이 1인 독재를 통해 지역 내 여러 종파 간 갈등을 통제하는 시스템과 비슷하게, 북한 역시 그동안 지도자로 모든 리더십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2인자나 3인자가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김정은이 제거된 후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를 자칭하는 인물이 등장하여 세력을 규합할 수 있으며, 이 세력 간 권력투쟁의 심화로 내전과 같은 폭력 사태가 야기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군에 속해있는 인물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 및 미사일과 같은 북한의 전략 무기를 탈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어떤 정권이 수립되느냐 여부는 주변국에게 매우 큰 불안을 남길 수 있다.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IS가 지역 내 석유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는 것처럼 해외 테러 단체에 핵무기, 핵물질, 핵기술 등을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북한 지역의 리더십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권력투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참여하는 인물 및 세력이 각각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의 지원을 받고 내전 수준으로 갈등의 수위를 올릴 수도 있다. 김정은의 제거는 북한 지역의 권력 공백을 의미하며, 북한의 주변 국가에서는 차기 지도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을 통해 부동항을 사용하고 한국까지 횡단하는 시베리아 열차 및 가스관을 설치하려는 러시아와, 대륙

내 미국의 영향권이 확대되지 않도록 북한이 방과제 역할을 지속적으로 맡아주길 바라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들어설 새로운 지도자가 자국에 유리한 인물이어야 한다. 실제 중국이 피습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일가의 후견인을 맡고 있듯이, 탈북한 북한의 엘리트 정치인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¹⁾ 고로 북한에서 김정은이 제거된 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과도정부나 한국이 대안적으로 설치한 기관을 무시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이 북한 지역에서 새롭게 세력을 규합하려는 인물이나 세력과 접선하여 친중 혹은 친러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무기와 자본을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때 미국과 남한이 세운 정권과 친중 혹은 친러 정권 사이의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내전으로 확장되어 휴전선 이남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아예 간과할 수 없다.

V. 결론

본 논문은 해외에서 실행된 참수작전 사례를 검토하고 이 작전으로 인한 지역 내 불안정성 제고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관련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수행할 경우 한반도 지역 차원의 불안정성은 커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예측하였다. 김정은 제거에 대한 북한 주민의 대중적 지지도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북한 내부에서 신화의 영역에 있는 ‘김일성’의 혈통을 계승한 김정은의 제거가

41) “김정남 피살’에 놀란 中, 탈북인사 보호 강화한 듯,” 『연합뉴스』 (온라인), 2017년 2월 16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6/0200000000AKR20170216089300083.HTML?input=1195m>>.

북한에서 순교자 효과를 내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및 게릴라 부대를 양성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김정은 추종자 중 가족과 혈육, 권력 엘리트를 중심으로 저항세력이 규합되어 전선을 형성하거나, 차기 지도자 자리를 놓고 북한 내부적 분열로 인해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탐색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지역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경우, 그 피해는 한국에 전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 내전 상황은 물론 한국에 대한 테러 행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지도자에 대한 참수 작전이 아직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북한의 위협제거 방법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미국 주도로 행해질 수 있는 북한에 대한 폭격 및 참수 작전은 사전에 예방되어야 하며, 북한의 안정성이 담보되는 환경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위협 행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데, 북한의 위협 강도가 커져서 참수작전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을 때 이 작전으로 인한 한반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①북한 내부에 여전히 유효한 지도자에 대한 일반 주민의 우호적 인식을 약화시키고, ② 김정은 추종 세력 및 김정은 생전 지배연합을 형성하고 있던 정치 엘리트를 참수작전 전후로 완전히 포섭 내지 제거해야 한다는 점과 ③지도자 제거 이후 북한의 불안정성을 수습할 수 있는 대안리더십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 개발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는 불량한 북한의 태도에 대한 반감을 넘어서 실제 위협으로 인식하고 북한이 미국이 핵심 이익을 침해하거나 미국

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미흡하게 할 때 미국은 이것을 구실로 북한 지도부 제거라는 참수작전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카다피에 대해서는 R2P를 명목으로 이 작전을 진행했다는 점은 북한의 내부 붕괴, 소요 사태가 일어날 때 북한 지도부 제거 유인으로 R2P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한국의 대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주에는 북한 내부 스트레스 관리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이 부분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 접수: 2017년 10월 31일 / 게재확장: 2017년 12월 1일

【참고문헌】

- 강봉구. “글로벌 지하드.” 『한국정치학회보』, 제36권 4호 (2002), pp. 141~158.
- 강호제.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분석: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 시도와 CNC 기술 개발.”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1호 (2015), pp. 249~276.
- 김병렬. “4세대 전쟁에서의 민간인의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에 관한 일고.” 『국제법학회논총』, 제55권 1호 (2010), pp. 55~77.
-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2호 (2014), pp. 147~172.
- 김영수. “북한의 대미 인식.” 『현대북한연구』, 제6권 2호 (2003), pp. 9~52.
- 김윤애. “영생하는 수령과 ‘그리움의 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6권 2호 (2016), pp. 207~251.
- 양준희. “월츠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웬트의 구성주의의 도전.” 『국제정치논총』, 제41권 3호 (2001), pp. 25~46.
- 유재형. “무력충돌법상 민간인의 보호.” 『강원법학』, 제32권 (2011), pp. 385~439.
- 이근욱. “미래의 전쟁과 전쟁의 미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군사혁신의 두 가지 측면.” 『신아세아』, 제17권 (2010), pp. 137~161.
- 이종철. “민주주의 확산과 전후 재건의 한계와 교훈: 미국의 이라크 전쟁 수행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2권 3호 (2009), pp. 157~187.
- 이진규 · 권한용. “국제법상 ‘군사적 필요성’에 관한 일고찰.” 『동아법학』, 제71권 (2016), pp. 147~170.
- 정영철. “북한의 반미: 이데올로기, 문화 그리고 균열.” 『신아세아』, 제18권 2호 (2011), pp. 146~170.
- 최규빈. “남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 비교-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8권 1호 (2016), pp. 109~143.
- 한용섭. “기획논문: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안보;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 평가와 전망.” 『국방연구』, 제46권 2호 (2003), pp. 3~31.
- Brooks, Stephen G., G. John Ikenberry, eds. “Don't come home, America: The case against retrenchm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37, no. 3 (2012), pp. 7~51.
- D'Alessio, Stewart J., Lisa Stolzenberg, eds. “Does Targeted Capture Reduce

- Terrorism?"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vol. 37, no. 10 (2014), pp. 881~894.
- Dear, Keith Patrick. "Beheading the hydra? Does killing terrorist or insurgent leaders work?" *Defence studies*, vol. 13, no. 3 (2013), pp. 293~337.
- Fearon, James D. "Domestic political audiences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03 (1994), pp. 577~592.
- Hazelton, Jacqueline L. "Drone Strikes and Grand Strategy: Toward a Political Understanding of the Uses of Unmanned Aerial Vehicle Attacks in US Security Polic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0, no. 1-2 (2017), pp. 68~91.
- Homer-Dixon, Thomas. "The rise of complex terrorism." *Foreign Policy*, vol. 128, (2002), pp. 52~62.
- Isbell, Billie Jean. "Shining Path and Peasant Responses in Rural Ayacucho." *The Shining Path of Peru*, (1994), pp. 77~99.
- Johnston, Patrick B. "Does decapitation work?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leadership targeting in counterinsurgency campaig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4 (2012), pp. 47~79.
- Jordan, Jenna. "Attacking the leader, missing the mark: Why terrorist groups survive decapitation strik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8, no. 4 (2014), pp. 7~38.
- Lehrke, Jesse Paul, and Rahel Schomaker. "Kill, Capture, or Defend? The Effectiveness of Specific and General Counterterrorism Tactics Against the Global Threats of the Post-9/11 Era." *Security Studies*, vol. 25, no. 4 (2016), pp. 729~762.
- Lotrionte, Catherine. "When to target leaders." *Washington Quarterly*, vol. 26, no. 3 (2003), pp. 73~86.
- Mannes, Aaron. "Testing the Snake Head Strategy: Does Killing or Capturing its Leaders Reduce a Terrorist Group's Activit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cy Solutions*, vol. 9, no. 40 (2008), pp. 40~49.
- Masters, Jonathan. "Targeted killing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vol. 23, (2013).
- McDonald, Patrick J. *The invisible hand of peace: Capitalism, the war machin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Melzer, Nils. *Targeted Killing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Palmer, David Scott. "Revolutionary leadership as necessary element in people's war: Shining Path of Peru." *Small Wars & Insurgencies*, vol. 28, no. 3 (2017), pp. 426~450.
- Price, Bryan C. "Targeting top terrorists: How leadership decapitation contributes to counterterrorism."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4 (2012), pp. 9~46.
- Sageman, Marc. *Leaderless Jihad*. Univ. of Pennsylvania Press, 2011.
- Sullivan, Mark P. "Panama: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nd US Relations."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1.
-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02.
- Tullock, Gordon. *Autocracy*.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7.
- Watkins, Jonathan D. "The state, conflict and the individual: the effect of the Janatha Vimukthi Peramuna (JVP) insurrections in Sri Lanka on the mental welfare of a population." *Medicine, Conflict and Survival*, vol. 21, no. 3 (2005), pp. 216~229.
- Wendt, Alexander.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1992), pp. 391~425.

『연합뉴스』

한국국방연구원

Daily Mail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Possibility of Increased In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fter a
Decapitation Strike
: Focusing on the Case studies of Overseas Decapitation
Operations

Hwang, Sohee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a possibility that the removal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will cause and increase in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 decapitation strike seems to be one of the various measures to settle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The strike is not an all-out war but a targeted-killing of international political actors and related groups classified as troubled. In the Korean peninsula, it has been recently on the agenda for dealing with Kim Jong Eun and its leadership. Decapitation is said to have contributed to dismantling rebellion, terrorist groups and brought the region's conflicts to an end. It cannot be denied, however, that there is still a possible growth of instability in the region caused by the strike. Based on this possibility, the paper examines some actual cases of overseas decapitation operations. The operations carried out abroad were conducted against the leaders of authoritarian states, rebel organizations, domestic anti-government forces, and terrorist organizations developing into transnational actors. Three factors affecting regional stability

have been extracted from the review of the overseas cases; the local residents' support, the activities of the followers, and the alternative leadershi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predicted that the removal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would increase instability in North Korea as well as in South Korea.

Key words: removal of North Korean leadership, decapitation strike, beheading, Korean Peninsula, decapitation North Korea leadership

황소희 (Hwang, Sohee(SOEY))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동 대학원 통일학협동과정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미디어와 평화분쟁, 권위주의 정권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지도자 수준의 정책결정과정,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제정치 등이다. 주요 논문과 수상실적은 “국제정치가 대북정책에 건네는 대화”가 국회입법조사처 등재지 『입법과 정책』에 게재되었고, “가톨릭 구성원의 정체성 충돌과 정권의 대응: 공산주의 집권 전후 북한과 중국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논문으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60주년 대학원생 논문 공모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